



#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신흥국진출 현황 및 전망

김진억 수석담당역

■ 유럽과 미국,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등 신흥국 보험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sup>1)</sup>

- 2014년 1월, Metlife는 말레이시아 은행금융그룹인 AMMB로부터 생명보험회사인 Amlife의 지분 50%를 매입하였고 산하 은행들을 통해 20년 동안 독점 판매할 것을 합의함.<sup>2)</sup>
- 2014년 2월, AXA는 중국의 손해보험회사인 Tian Ping Auto Insurance Co. Ltd의 지분 50%<sup>3)</sup>를 약 6억 4천 1백만 달러에 매입하며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였음.
  - 더불어 AXA는 UAE의 파트너(Kanoo Group)와 함께 생명보험회사인 Green Crescent Insurance(GCIC)의 지분에 투자하며 중동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음.<sup>4)</sup>
  - 2013년에는 Swiss Re가 브라질 보험회사 Sul America를 3억 3천 9백만 달러에 매입하고 New China Life를 4억 9천 3백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음.
- 2014년 2월, 미국의 Liberty Mutual Insurance Group은 말레이시아의 Uni.Asia Capital Bhd.로부터 Uni.Asia General Insurance Berhan의 지분 68.09%를 1억 1천 3백만 달러에 취득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함.
  - 한편 Prudential Financial Inc.는 2013년에 Uni.Asia Capital Bhd.로부터 Uni.Asia Life Assurance Berhad를 1억 6천만 달러에 매입하며 말레이시아 생보시장에 진입하였음.
- 일본과 타이완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아시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14년 들어 닛세이, 메이지야스다, 다이이치생명 등이 해외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터키 등 신흥국중심으로 투자와 M&A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타이완의 경우도 2014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보험회사의 아시아지역 진출 촉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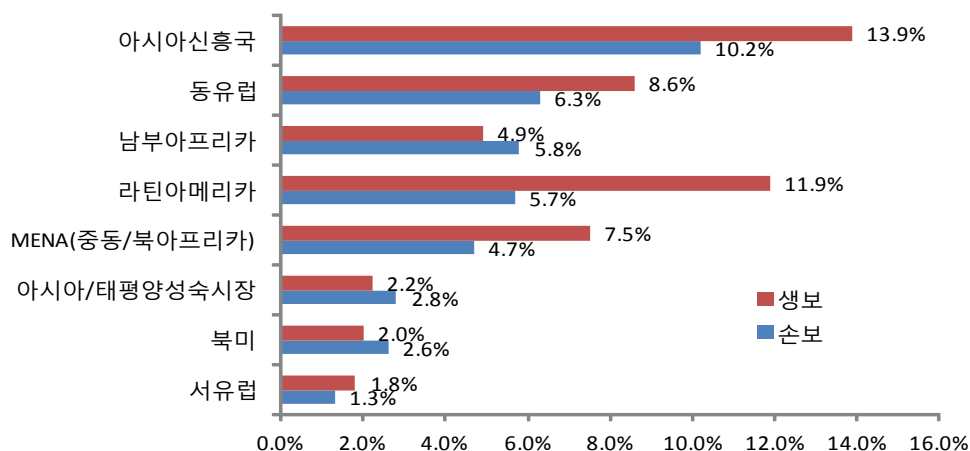
1) Swiss Re는 2014년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선진국의 경우 3.6%, 신흥국의 경우 7.4%가 될 것으로 전망함.  
 2) 본 경쟁입찰에는 Manulife Financial Corp와 ACE그룹도 참여했으며, ACE그룹은 2012년 멕시코의 보험회사인 Fianzas Monterrey를 2억 9천 3백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ABA Seguros를 8억 6천 5백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음.  
 3) AXA 그룹과 Zurich Insurance Group은 2013년에 중국에서의 지점을 자회사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국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었음.  
 4) AXA는 2012년 HSBC의 아시아시장 일반손해보험부문을 9억 1천 4백만 달러에 매입하였음.

위해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모색하고 있음.<sup>5)</sup>

■ 보험시장 발전단계<sup>6)</sup>와 보험시장 성장률 측면에서 아시아 신흥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20년까지 아시아신흥국의 연평균 보험시장 성장률은 생명보험 13.9%, 손해보험 10.2%로 서유럽 국가에 비해 각각 6.3배, 7.8배 수준임.
  - 이는 초기단계 혹은 초기성장단계에 있는 아시아신흥국 보험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주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환률 하락으로 신흥국 시장의 M&A는 더욱 매력적임.

〈그림 1〉 보험시장별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3~2020)



자료: Munich Re Economic Research.

- 보험시장의 발전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볼 때, 초기단계의 경우 자동차보험 등 개인보험종목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 2012년 신흥시장의 손해보험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은 45%를 차지하였음.
  - 이 경우 현지 국내보험회사에게 유리하며 재보험회사 이외의 글로벌 보험회사에게는 현지 보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시장 확대에 유리함.
- 중산층이 성장하고 보험침투도가 상승하는 초기성장단계에 이르게 되면 현지 보험회사들은 자본 제약으로 위험인수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재보험 의존도가 높아짐.
  - 개인보험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과 기간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성 보험이 중요해짐.

5) Asia Insurance Review(2014, 2, 27).

6) Deloitte는 보험시장 발전단계를 초기단계, 초기성장단계, 고성장단계, 성숙시장단계, 안정성장단계로 구분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표 1> 참조.

- 이는 글로벌 보험회사 특히 특수보험 보험회사와 국제적인 보험중개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중동의 경우 건설과 에너지리스크에 대한 보험수요가 비등하고 있어 이와 같은 단계에 있음.

〈표 1〉 보험시장 발전 단계

| 구분     | 설명   |
|--------|--|
| 초기단계   | 개인보험구입수준이 낮으며, 현지보험시장에서 인수됨. 현지보험산업은 리스크를 국제보험시장에 전가하기 위해 재보험을 극단적으로 이용함.(예: 필리핀)  |
| 초기성장단계 | 개인보험침투도가 증가하고 현지보험회사는 점차적으로 위험보유를 증가시킴. 현지보험산업이 성장하고 국제적 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현지기업보험시장이 성장함. 기업성보험에 대한 현지 위험보유성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제재보험시장에서 재보험구입이 극단적임.(예: 태국) |
| 고성장단계  | 국제적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현지시장에 진입함. 현지보험회사가 자본을 축적하고 상품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성장하지만 전형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가구위험에 대한 리스크보유만 증가시킴. 재보험은 여전히 시장성장과 위험전가를 위한 주요 수단임.(예: 브라질)      |
| 성숙시장단계 | GDP성장이 지속되며 보험시장은 보다 정교해지고 특수한 위험에 대한 보험이 필요함. 보험중개 및 보험 시장이 보다 복잡해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보험시장이 개발됨.(예: 남아프리카공화국)                                     |
| 안정성장단계 | 성숙된 경제에는 전 분야의 보험상품이 요구되고, 국내 및 국제적인 보험회사 모두 활발히 운영됨. 글로벌 허브와 지역 허브에서 복잡한 특수보험종목인수전문지식을 이용함.(예: 미국)  |

자료: Deloitte.

#### ■ 유럽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시장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로이드의 경우 신흥시장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흥시장 보험료 비중을 2025년까지 25%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7)</sup>
  - 중국의 인민보험회사와 PIC Re와 같은 대형보험회사와 특수보험 분야에서 입지 강화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보험침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보험회사와 중개사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충분한 보험시장 성장 여력과 국제적인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도 상당한데, 특히 100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있어 기업결합의 잠재성이 풍부함.

7) 한국에서도 법인형태의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메트로, 2014. 2. 11)

〈표 2〉 라틴아메리카 손해보험 잠재시장 성장

(단위: 억 달러)

| 구분      | 현재(2012) | 잠재시장 규모 | 증가  | 성장률  |
|---------|----------|---------|-----|------|
| 브라질     | 374      | 640     | 266 | 71%  |
| 멕시코     | 132      | 334     | 202 | 153% |
| 콜롬비아    | 61       | 104     | 43  | 70%  |
| 페루      | 16       | 57      | 41  | 256% |
| 칠레      | 44       | 75      | 31  | 70%  |
| 에콰도르    | 12       | 24      | 12  | 100% |
| 도미니카공화국 | 6        | 16      | 10  | 167% |
| 아르헨티나   | 123      | 133     | 10  | 8%   |
| 과테말라    | 5        | 14      | 9   | 180% |
| 우루과이    | 7        | 14      | 7   | 100% |

주: 잠재시장의 규모는 손해보험침투도를 남아메리카시장 평균인 GDP의 1.72%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자료: Swiss Re(2013), Deloitte.

■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진출 대상국의 보험시장 발전단계와 시장경쟁 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진출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임.

● 진출대상국 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Deloitte 등)